유아영재 판별

한 유 미(호서대학교 아동학 전공 전임강사)

영재교육진흥법의 공포로 인해 유아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박혜원 교수님의 원고는 특히 학업적 영재에 초점을 두어 유아기의 영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판별의 방법 및 판별시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제시하여 유아영재의 판별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박 교수님의 원고를 토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발표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감하는 입장에서 발표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만 보충하고자 한다.

1. 왜 유아영재판별을 해야 하는가?

유아영재 판별의 방법이나 문제점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왜 유아영재를 판별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답은 조기에 영재로 판별되지 않음으로 인해 영재성 개발에 필요한 자극을 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외부의 적절한 자극과 도움을 받지 못한 재능은 쉽게 사라질 수 있으며, 미성취 영재 문제는 3세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아동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세심하고 통제된 관찰을 통해 지적 능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일부 영재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능력을 숨기게 되고, 그 결과 오히려 판별을 더 어렵게 하기도 한다. 즉, 아동은 유치원에 입학한 첫날부터 집단의 평균을 향해 행동을 수정하도록 하는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수정은 사회적 행동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창의성이나 지적 행동에서도 발견되는데, 영재아의 경우 이러한 평균을 향한 수정은 퇴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Fatouros, 1986). 이외에도 대부분의 능력이 다 그러하듯이 영재성의 개발도 나이가 어릴수록 용이하고 그 효과가 클 것이다. 그리고 인간발달 단계에서 유아기는 여러 가지 태도와 습관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라는 점에서도 유아영재를 판별·교육해야 하는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2. 유아영재판별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서 영재를 판별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판별대상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판별상의 오류 역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한편 발표자는 유아영재의 특징으로 불균형(dyssyncrony)이나 불안정성을 들고 있지만 이러한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별을 어렵게 만드는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첨가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영재판별의 정확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영역에서건 18세보다는 3-4세의 잠재적 영재를 판별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유아영재는 나이든 영재에 비해 재능을 개발할 기회나 경험이 적었을 것이므로 결국 아무런 재능도 밖으로 나타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표자가 제시한 대로 영재는 여러 측면에서 일반 아동과 다른 특성을 나타내며, 이는 유아기부터 상당히 정확하게 관찰된다. 따라서 유아기 영재성은 실제적 영재성(actual giftedness)보다 잠재적 영재성(potential giftedness)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실제로 성취한 내용보다는 영재성의 초기 지표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Torrance & Carpopreso, 1999).

잠재적 영재성은 키나 머리색처럼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으며, 자연적 상황이나 통제된 상황에서 유아의 행동을 관찰해서 추론해야 한다. 그러나 유아의 행동은 나이든 아동의 행동보다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적다. 이들의 인성은 여전히 발달하고 있으며, 종종 자신의 견해나 행동을 주변 사람에 맞추어 바꾼다. 이로 인해 유아영재의 행동 관찰을 토대로 정확하고 확실한 예측을 하기 어렵다(Fatouros, 1986). 지능검사로 측정된 지능지수도 유아영재의 경우에는 매우 불안정하고 가변적인 것으로 발견되고 있다(Torrance & Carpopreso, 1999). 또한 영유아기의 지능과 그 이후의 지능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발표자의 논의 역시 유아영재 판별의 어려움을 시사해주고 있다.

유아영재는 영재라고 해도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검사를 받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발표자가 지적한 대로 유아기 아동을 위한 검사도구는 아동기나 그 이후의 검사에 비해 많지 않다. 그나마 많은 경우 국내에서 표준화를 거치지 않고 번역판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유아영재에게는 발달적 특성상 개별검사만 실시할 수 있고, 숙련된 검사자가 필요하다. 개별검사를 실시하면 집단검사를 실시할 때보다 총점이 향상되는 경

향이 있지만, 시간과 비용 등의 실용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표준화된 좋은 검사도구로 개별검사를 실시한다 해도 유아가 최선을 다해 검사에 임하려는 동기유발이 늘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유아영재는 언어적 기술, 수줍음, 라포 형성의 어려움, 건강 및 순간적 감정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수행이 매우 가변적인 경향이 있다(Torrance & Carpopreso, 1999).

한편 발표자는 유아영재의 판별에 지능이나 창의성 검사 등의 표준화 검사 외에도 지명(nomination)이나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통로를 사용할 것이 제안하고 있다.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러한 여러 방법들 역시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그 정확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나이든 영재아동의 판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인 교사의 판단은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 정확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는 단지 유아영재의 4.3%만을 알아보고 있었다(7, 9학년 영재아동의 경우는 50%)(Fatouros, 1986). 이로 인해 유아영재의 경우 영재를 판별하는 교사의 능력은 거의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또래 및 자기 추천도 전혀 쓸모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Perleth et. al, 1993). 유아의 판단은 종종 옷, 매력 등 영재성과 무관한 요인에 좌우되고, 교사의 태도가 반영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Torrance & Carpopreso, 1999). 이에 비해 부모는 연구자가 제시한 대로 유아영재를 비교적 잘 판별할 수 있는 원천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표자가 인용한 외국의 연구(Louis & Lewis, 1992; Robinson, 1987)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자녀의 영재성 여부를 평가받기 위해 영재연구실을 방문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조석희(1993)의 연구에서도 부모들은 자녀의 영재성을 판정하는데 상당한 정도로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3. 유아영재판별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상과 같은 유아영재의 발달적 특성과 이로 인해 제기되는 판별상의 문제점들로 볼 때 유아영재 판별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발표자는 유아의 경우 다양한 재능이 잘 분화되어 있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했으나 이로 인해 유아영재의 판별이 나이든 영재아동의 판별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즉, 판별의 초점 면에서 볼 때, 나이든 아동의 경우에는 특정 분야의 적성과 관련되고 재능이 분화되어 나타나기 때

문에 특정 분야별 적성과 재능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유아영재판별은 타고난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유아영재의 능력과 여러 가지 특성들이 안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과정에 있고, 수학, 과학, 음악 등의 특정 분야에서 재능이 발휘되기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능과 같은 일반적인 능력을 영재성의 지표로 삼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다(이재신, 1996).

지능검사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지만, 지적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교사나 부모에게 영재로 쉽사리 인식되지 않고 지능검사를 통해서만 영재로 판별되는 영재들도 있다는 점에서 지능검사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Serebriakoff, 1992). 그러나 지능검사를 사용할 때에는 발표자가 지적한 대로 검사결과의 해석을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같은 지능검사에서 같은 지능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부 검사의 수행 사항은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지능지수에서 하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의 점수를 받은 유아를 영재로 판별하기 보다 지능의 전체적인 프로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 등 의 하위 지능 중 한 가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종합적인 지능지수가 이 기준을 넘지 못했더라도 영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점에서 유아영재를 판별하는 검사자의 자질도 검사 도구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의학, 사회, 교육, 심리 등 관련 영역간의 팀접근에 대한 발표자의 제안이나 훈련받은 검사자 및 교사가 검사를 실시하고 점수를 내더라도 검사결과의 해석은 심리측정 분야의 졸업자나 전문적 훈련과 경험을 지닌 자가 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Osborn(1998)이 지적하듯 심리측정 전문가들도 여러 유형의 아동을 측정하는 훈련을 받긴 했지만 특별히 유아영재성을 측정하도록 훈련된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영재를 측정하는 것은 일반 아동을 측정하는 것과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으므로 같은 영역을 측정한다해도 특수한 측정기법이나 검사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영재의 판별과 교육은 체계적인 전문적 연수 교육 과정과 워크샵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공식력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영재를 직접 판별하거나 교육하는 교사의 전문성 함양뿐 아니라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영재교육과 관련된 연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발표자는 영재 판별기준은 판별 목적에 따라 융통성을 지닐 수 있으므

로 상위 10% 이상, 상위 3% 이상, 상위 0.5% 이상 등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영재의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논의가 없어 아쉬움이 있다. 영재를 어느 정도의 범위로 볼 것인가는 매우 관심 있는 이슈인데, 유아영재의 판별은 이후의 연령보다 범위를 넓혀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어릴 수록 아동은 변화하는 과정에 있고 심리적 특성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 판별의 오류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아기에는 되도록 많은 유아를 선발하여 영재프로그램을 받게 하고 교육과정에서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판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일회적인 판별작업에서 초래될 수 있는 판별상의 오류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조석희, 1995).

마지막 논의점은 유아영재판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는 두 가지 방향이라는 것이다. 하나는 실제로 영재인 유아를 영재로 판별하지 못하는 오류이고, 다른 하나는 영재가 아닌 유아를 영재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이다. 그런데 딜레마는 한 가지 오류를 줄이고자 하면 다른 오류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발표자는 영재 아동을 선별하지 못하고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때의 문제(missing)가 더 심각하며, 일반 아동이 영재로 잘못 판정되었다가 후에 영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날 때의 문제(false alarm)는 바람직한 교육적 환경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발표자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영재로 명명되던 유아가 후에 영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의 부작용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Brandwein이 주장한 자가판별법(self-identification)의 장점을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도록 개방하는 자가판별법을 활용하면 처음에는 영재프로그램에 비영재까지 참여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하거나 흥미를 잃은 사람은 결국 중도 탈락하고 능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프로그램에 남게 될 것이며, 이들이야말로 그 분야의 영재일 확률이 높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영재아의 정의, 판별기준, 검사의 타당성 등 각종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조석희외, 1996).

이와 같이 볼 때 지나치게 판별에 얽매이기 보다 다양한 유형의 유아영재가 있음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도구와 절차를 적절하고 변별력 있게 사용하여 누락되는 영재아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재로 판별된 유아를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정확하게 유아영재를 판별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재정, 시간, 에너지를 써버렸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재정과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유아영재를 판별하는데 지나친 투자와 관심을 쏟기보다는 다양한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겠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설 운영되면 한가지 재능만 있는 유아도 자신의 영역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영재의 판별이 엄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조석희외, 1996).

참 고 문 헌

조석희(1993)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는 영재성의 개념 및 판별상의 정확도. 영재교육연구 2,1,181-104.

이재신(1996) 영재교육 : 판별과 교육의 실제. 영재교육연구. 6,1,

조석희(1995) 영재성과 영재교육의 개념 : 피라미드 모델. 영재교육연구. 5,1,1-32.

조석희, 박경숙, 김홍원, 김명숙, 윤지숙(1996). 영재 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육개발원.

Fatouros, C.(1986) Early identification of gifted children is crucial... but how should we go about it?. Gifted Education International, 4,24-8 .

Osborn, J.B.(1998) Assessing gifted children. http://www.hoagiesgifted.org/index.htm.

Perleth, C., Lehwald, G., & Browder, C.S.(1993) Indicators of high ability in young children In K. A. Heller, F. J. Monis, & Passow, A. H.(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Serebriakoff, V. (1992) The limitation of intelligence. Looking to their future(NAGC Newsletter Autumn 1992).

Torrance, E.P, & Carpopreso, E.J.(1999) Assessment of preschool giftedness : Intelligence and creativity. http://www.hoagiesgifted.org/young_children.htm.